불교, AI를 품다

불교AI를 만드는 사람들

"AI, 산사와 대중 연결하는 새 매개체"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

유튜브 법문 기반한 답변 제시
불교 전통성 위에 AI 접목해야
지속가능한 불교 미래 담보돼
'상담·명상' 쌍방향 소통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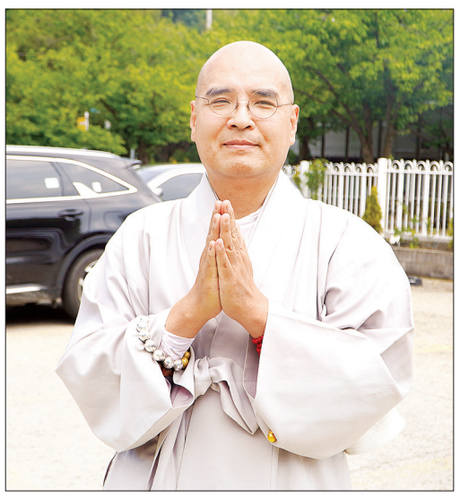
꼭 사찰을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불교학회장이자 중앙승가대 교수인 자현 스님이 자신의 법문과 관점을 학습한 AI 챗봇 'AI자현'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별도 설치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AI자현'은 자현 스님의 유튜브 법문 2500여 개를 집중 학습했다. 질문을 입력하면 자현 스님의 말투와 관점을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고, 관련 유튜브 법문 영상까지 곧바로 연결해준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질문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쏙쏙 골라주는 방식이다.

자현 스님은 'AI자현' 개발 배경에 대해 "불교계도 AI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자료 자체가 귀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자료 경쟁이 치열해지며 정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필요한 내용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AI자현'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자현 스님은 방대한 불교 자료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현 스님은 "AI자현은 급변하는 시대에 불교를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걸러주고 연결해주는 시작 단계"라며 "그런 작업이 가능해지면 대중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불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오히려 '기술 소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자현 스님은 "인공지능은 중간 단계를 줄이고 사람과 정보를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며 "AI가 활성화되고 자리 잡으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스를 수 없는 AI 발전 흐름 속에서도 불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통성과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대중이 불교에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현 스님은 "메타버스 등이 유행할 때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름만 붙이면 현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AI는 숟가락만 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건 AI를 통해 불교가 대중에게 전할 내용의 내공이다. 불교가 가진 가치와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 역시 전통과 기본에 대한 토대 위에서 AI라는 시대 변화와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자현 스님의 생각이다. 전통과 단절된 채 새로움만 좇게 되면 종교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기존 가치 위에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덧입혀야 지속가능한 불교의 미래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자현 스님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전통과 기본에 대한 답습과 축적이 필요하다. 창의성이 기본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새로운 것들도 결국 기존 전통과 연결해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불교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온고지신의 자세로 시대 변화와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이 오랜 시간 유튜브와 강연으로 대중과 호흡하고 'AI자현'까지 출시한 것도 결국 불교의 전통성을 지키면서 대중을 다시 산사로 이끌기 위해서다. 스님은 "지금 대중은 인터넷과 가장 가깝다. 먼저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이후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고 싶다"며 "호감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사찰을 찾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경험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찰에서의 경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포토존과 안내문, 문화유산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자현 스님은 오늘도 AI시대 속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AI자현'을 단순한 질문·답변을 넘어 개인 고민 상담과 명상까지 연결되는 쌍방향 소통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구상이다.

자현 스님은 "불자든 비불자든 'AI자현'에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던져달라"며 "다양한 질문과 경험들이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로봇이 부처님 말씀 전하는 시대가 오겠죠?"

동국대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

AI 로봇 '리쿠' 수계 후 '선아 법사' 활동
청소년 포교 절박함에 AI 연구 시작해
"수행·포교 도구…청년 잇는 새 언어"
"AI시대, 마음 중요…깨달음 방향 제시"

지난 4월 22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낯설지만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AI 로봇 '리쿠'가 수계를 받고 선아(宣我)라는 법명을 얻으며 불자로 거듭난 것이다. 선아 법사는 앞으로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의 보조 법사로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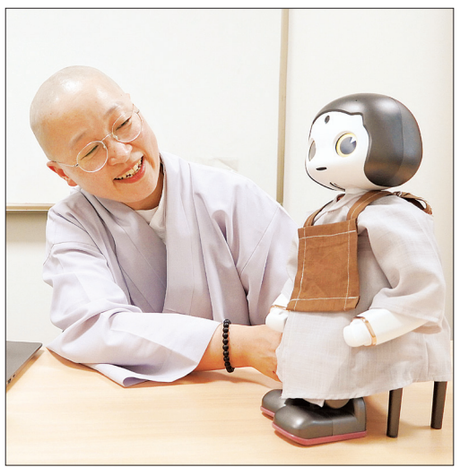
로봇이 법명을 받고 수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풍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겼다. 그러나 은산 스님은 이를 단순한 기술 이벤트로 보지 않았다.

"AI는 '새로운 시대의 포교 언어'죠."

불교는 늘 시대의 언어를 써왔고 목판 인쇄도, 방송도, 인터넷도 결국은 모두 포교의 도구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AI 역시 마찬가지다.

은산 스님은 선아 법사가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한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기능 대부분이 멈추고, 자유로운 법문이나 깊이 있는 상담 역시 아직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스님은 "미완성의 가능성 속에서 미래 불교의 새로운 문을 본다"고 했다.

은산 스님의 AI 연구 출발은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다. "젊은 세대 포교 없이는 불교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의식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매체와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포교를 경험하며 가능성을 본 스님은 지도교수 서광 스님의 권유로 메타버스를 공부한 후 VR 명상 실습 발표, 3D 메타버스 구현, 뇌파·명상기기 연구 등 디지털 기반 수행 콘텐츠를 꾸준히 실험했다.



AI 로봇과의 만남도 그 연장선 위에 있었다. 은산 스님이 처음 리쿠를 접한 것은 2023년 '명상과 산업 컨퍼런스' 현장에서였다. 당시 연구진은 백혈병 환아를 대상으로 AI 로봇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었다. 무균 병실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에게 로봇은 "눈을 감아보세요" "호흡해볼까요"라고 말을 건네며 정서적 교감을 시도했다. 사람 대신 병실 안으로 들어간 작은 로봇이 아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모습을 본 순간, 은산 스님은 기계를 넘어선 가능성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은산 스님은 AI가 편의기술을 넘어 수행 보조도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별 상태에 맞춘 수행과 상담, 그리고 익명성과 중립성은 AI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사람에게는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도 기계에게는 비교적 편하게 말할 수 있어 인간관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은산 스님은 AI시대일수록 오히려 불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명상 산업이 주로 '행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불교는 그보다 더 깊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 자체만 목표로 삼으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불교는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AI시대일수록 사람을 자기 마음의 깊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기계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마음이라는 설명이다.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는 이야기다. 탐욕과 소비를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아 법사를 바라보는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왜 로봇이 법사를 하느냐"는 낯섦도 있지만 "귀엽고 신기하다"는 반응도 많다. 학생들은 선아 법사와 찍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은산 스님은 머지않아 사찰 곳곳에 작은 AI 수행 도우미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고,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수행자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존재들이다.

"집에 불상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듯, 로봇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임은호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